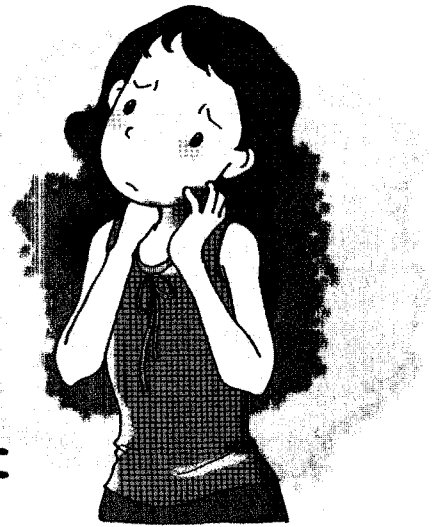


# 여성에게 많은 암 갑상선암 남성도 방심 말아야



요즈음 각종 암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갑상선암이 특히나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는 건강검진이 활성화 되면서 발견율이 높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날로 심해지는 환경오염과 인스턴트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 및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이 갑상선암을 부추기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유방암과 함께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잘 알려진 갑상선암.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여성만을 위협하는 암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우리들을 더 오싹하게 하는 데, 그 갑상선암에 대해 알아보자.

## 내 몸의 방패, 갑상선

갑상선이라는 이름은 '방패'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다. 갑상선 바로 위쪽에 있는 목젓에 해당하는 특 튀어나온 연골이 방패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갑상선은 목 앞에 튀어나온 부분에서 2~3cm 아래에 있는 나비처럼 생긴 장기를 일컫는다. 갑상선이 정상일 때에는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갑상선이 커져 쉽게 손으로 만져 확인할 수 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내분비선에 해당하며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갑상선호르몬은 탄수화물 등의 영양소 대사량을 조절하고 심장과 뼈, 뇌 등의 발육을 촉진한다. 또한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 불가사의한 갑상선 암

갑상선암은 발생률이 상위 5위안에 꼽히지만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갑상선은 나비 모양의 갑상선 전체에 생기는 암을 총칭하며, 안타깝게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대부분 갑상선에 결절(작은 혹)이 발견되어 진단된다. 그런데 갑상선을 초음파 검사로 보면 증상이 전혀 없는 성인 중 적게는 16%, 많게는 60% 넘게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며 문제로 지적한다.

다행인 것은 갑상선암은 일반적으로 천천히 자라고 전이가 잘 되지 않아 생존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재발률도 높아 갑상선암을 치료했다고 해도 매년 1~2회 피검사를 해야 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상선암의 최선의 치료법은 수술이다. 환자의 연령, 종양의 크기,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과 림프절 전이의 범위 및 원격 전이 유무 등을 고려해 수술의 범위를 결정한다. 수술 후에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고 갑상선암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

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재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 갑상선암은 예방해야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 만약 목에 딱딱한 종괴가 만져진다면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 또한 아무런 것도 만져지지 않는 경우에도 우연히 작은 갑상선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

##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갑상선암 궁금증

Q 갑상선암은 여성만 걸리나요?

갑상선암을 포함한 갑상선 질환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도 갑상선암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갑상선암의 남녀 비율은 1 : 5 정도로 여성이 더 많은데,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갑상선암의 발병률은 여성이 높지만 예후는 남성이 더 좋지 않다.

Q 목에 뭔가 걸리고 따끔따끔하게 아프기도 한데 혹시 갑상선암인가요?

갑상선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갑상선 질환은 목 안의 이물감이나 통증 또는 불쾌감 같은 증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갑상선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혹이 커서 기도나 식도를 눌러 숨쉬기가 힘들거나 음식을 삼킬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지만,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된다. 목 안이 불편한 것은 목 안의 염증, 즉 인두염이나 식도역류가 가장 흔한 원인이다. 목 바깥이 아니라 목 안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일단 갑상선암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다.

Q 갑상선암 환자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먹으면 안 된다는데 이러한 식품이 갑상선암과 관련이 있나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조개 새우 같은 해산물, 천일염, 우유 등에는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들어 내는 원료인 요오드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요오드가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 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 시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단,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원활하게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갑상선 세포가 비대해지면서 갑상선이 부풀어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요오드를 과잉 섭취하면 경우 정상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레이브스병 등의 갑상선 질환 환자에게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출처/헬스조선M, 갑상선암